

농촌마을 공간구성에 관한 특성 분석 - 고드미녹색마을, 명심체험마을, 오박사마을을 중심으로 -

정다영 · 리신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mposition in Rural Village - Focused on Godeumi Village, Myeongsim Experience Village, Ohbaksa Village -

Jeong, Da-Yeong · Rhee, Shin-Ho*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

**Dep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 space composition in rural village so that it can had foundations for Activation of regional community by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ural community places based on regionality and historicity. First, this study have been investigated about changes of overall space configuration and community places that has been lost or were ongoing in rural village. Factors of changes were changes in lifestyle, rural policy, social and political system, economic principles and ec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of rural village space configuration and inherited it. Second, basic principle of the space configuration of rural village were entryway and center that improve community cohesion in the community space. This study figured out improving of "Ma-Dang" and functional mix-use community hall was important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Third, This study set dire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pace configuration of each village and suggested detail plans.

Key words : Community Places, Space Configuration, Rural Village, Spatial Composition

1. 서 론

농촌정주인구의 과소화와 초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촌마을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농정방향은 식량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부문 중심에서 농외소득 증대, 농어민복지 향상,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활용 등의 농촌개발부문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조영재, 2010).

농촌개발정책은 1950년대부터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락구조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이르러 농·도교류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상향식 사업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단위와

권역중심의 농촌관광사업으로 확대되어 농림부의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르고 있다(김강섭과 이상정, 2006).

이러한 2000년대의 농촌개발정책들은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반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및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반이 되는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형식화되어 농촌의 활력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개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의 비중과 사업내용에 대한 빈도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및 소득기반시설, 경관시설, 농촌관광시설과 같은 시설물 위주의 계획으로 나타난다(박한식 등, 2008). 이와 같이 농촌마을 계획 시 시설물의 정비 및 기반확충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은 있으나 농촌마을의 정체성 및 역사성, 주민들의 공동체성 유지 및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침이나 체계적인 계획방향이 없는 실정이다.

Corresponding author : Rhee, Shin-Ho

Tel : 043-261-2574

E-mail : rhee2574@chungbuk.ac.kr

농촌개발정책 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사업기간 이후로 지속적인 체험마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속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생활공동체로 매일 마주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열린 소통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입지적 장소성과 활동에 따른 공간적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요구되므로 농촌마을 내에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성하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형성 및 활성화됨으로 농촌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 정부부처의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초하여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주민의 결속력을 모으는 공동공간을 분석 및 재구성하여 농촌마을의 공간구성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촌마을공간을 정주공간단위로 한정지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중 충북권내로 한정하였다. 2011년까지 마을 특성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마을의 공간적 변화가 크고, 각 3개 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가 각기 다른 마을을 선정하여 공동공간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한국전쟁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해 농촌마을의 공간구조가 격변하였으므로 195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완결된 공간에 대해 회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농촌마을의 대상지의 일반현황 및 역사를 조사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들어오기 전의 본연의 공간구조 및 요소를 일반화하여 개발 전 후의 변화된 물리적인 마을공간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공간들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평가하여 소실되

거나 보존되고 있는 공간과 공동체가 이용하는 빈번한 공동공간을 추출하였다.

마을별 유형 및 특징에 따른 계획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체계획과 부분별 공동공간을 계획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개념

마을의 공간구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마을전체 형상에 대한 관계는 관련된 각 공간들의 패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유형으로는 내부도로형, 진입도로형, 외부도로형이 있다.

내부도로형은 마을안길부분이 전체공간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여 마을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주로 마을회관, 방앗간, 가게 등이 위치하여 거주자들의 공적인 모임장소가 된다. 진입도로형은 마을내부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는 외부인의 방문 시 자연스런 감시와 방어의 기능과 함께 거주자들의 공적인 모임장소로 나타난다. 주로 마을회관, 상점, 공동우물 등이 진입도로와 내부도로인 안길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며, 종가나 재실은 샛길이나 골목길 등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 위치한다. 외부도로형은 마을 외곽의 큰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을 내·외부의 경계를 설정하며 외부인에 대한 감시와 방어체계가 형성된다. 마을회관이나 버스정류장, 상점 등의 공공시설은 큰길이나 인접한 안길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주거공간은 큰길, 어귀길이나 루프형 안길에서 연결되는 샛길을 골목길을 통해 진입이 이루어지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게 된다(양승정 등, 2006).

또한 농촌마을의 형태는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폐쇄적 종결형, 폐쇄적 일체형, 반개방적 종결형, 반개방적 순환형, 개방적 순환형으로 Figure 1과 같다.

(2) 농촌마을 공동체와 공동공간의 개념과 변화

주민들의 결속력을 모으는 공동체가 사용하는 공간을 공동공간, 공적공간, 공공공간, 영조공간 등 이라 부르며



Figure 1 농촌마을의 5가지 형태 (김묘정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공동공간으로 지칭하여 부른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Hillery, 1995). 개별적인 의식보다는 집단의식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의 협력체라 할 수 있다. 노동력, 신앙, 각종 의례 등과 노래, 이야기, 춤 등 다양한 문예활동과 유래, 전설 등의 마을의 역사도 함께 공유하여, '우리'라는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 나아가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 영성에 대한 관념이나 세계관까지 공유한다(임재해, 2007). 영조공간의 분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영조공간의 분류

항목	신앙·의례	휴식	생활부대
예	서낭당, 묘자리, 사당, 상여집	모정, 누, 각	우물, 빨래터, 목욕터
항목	마당	교육	기타
예	타작마당, 방앗간	서당, 서원	사랑방, 건조장

* 강선중과 김홍식, 1986, 마을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한국 전통사상 연구, 저자재정리

강선중과 김홍식(1986)은 공동공간을 영조물이라 하였다. 영조물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마을사람들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앙·의례시설물, 교육시설물, 휴식시설물, 생활부대시설물, 마당시설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마을공간내의 영조물들은 보행하는 사람들의 표적물과 통과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마을안과 외부사람들 간에도 접촉빈도를 한층 높임으로서 대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영조물의 자리 잡기는 공간들의 연계지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홍식은(1975)은 그 이외에도 공동공간은 마을 중심의 느티나무가 있는 휴식공간과 겨울에 모이는 사랑방, 건조장은 주민들이 담화를 나누는 공동체의 소통의 장이라 하였다.

김수진 등(2010)은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들을 설정 및 활용하기 위해 공동체 공간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역은 주로 집회, 휴식의 기능 그리고 공동생활의 중심 장소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간의 이용은 주로 대부분 소작들이나 여성들이 이용하였다. 특히 우물과 샘터 등의 공간은 여성의 대표적인 작업공간이면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례공간과 같은 의식적 영역은 전통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의 공동시설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용된 것으로 공동우물, 빨래터, 화수정 등이다. 1955년경 집마다 펌프를 설치하여 식수를 해결함으로써 우물은 이용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1980년경부터 간이상수도가 시설됨에 따라 우물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

식수를 공급하는 방식이 공동우물에서 상수도로 변화함에 따라서 마을 내부에서의 이동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사이에 나있던 좁은 길들도 통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없어지게 되었다(한필원과 이광노, 1990).

이상문(2001)은 마을공간은 크게 생활, 생산, 문화공동공간으로 나누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영향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간들이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구관장, 정미소, 공동우물, 빨래터, 성황당, 초등학교, 사찰 등의 공간과 기능이 소멸되자 다른 기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는 마을회관, 마을창고, 농기계창고, 집하장, 정자목 등으로 나타났다.

조순재(2002)는 농촌지역의 공동시설의 유형을 사회시설, 농업관련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영완 등(2010)은 농촌공간을 환경·생산·생활공간으로 분류하여 농촌개발정책사업에 따른 메뉴얼을 토대로 공간을 구분하였다.

이상으로 공동공간에 대한 유형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공간의 유형을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영역으로는 정치·집회·휴식·생활공간으로 묶인 생활공동공간, 농업생산공간인 생산공동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의식적영역으로는 과거에는 의례영역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전통과 역사, 신앙과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인 문화공동공간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2 마을 공동공간의 유형

구분	사회적 영역		의식적 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유형			문화공동
공동공간	농막(모정), 루, 정자, 노거수, 정자목,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우물, 마을마당, 샘터, 빨래터, 목욕터, 방축, 못, 지당터, 구관장, 놀이터	연자방아, 타작마당, 동네창고, 건조장, 집하장, 정미소	비, 각, 종가, 묘, 고가, 서원, 서당, 향교, 마을숲, 비보숲, 서낭당, 당산목, 제당

* 저자 재정리

III.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현황분석

대상지는 충북권내의 체험마을로 2000년대부터 2011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마을 3곳은 농촌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지리적, 공간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고드미녹색마을, 명심체험마을, 오박사마을이다.

(1) 고드미녹색마을 일반 현황

고드미녹색마을은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마을이며,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3년에 선정된 충북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마을이다. 귀래리는 청원군 소재지인 청주로부터 보은방향으로 약 20km 내외에 있는 전형적인 진입도로형 산골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큰고드미, 동녘골, 시골, 작은고드미로 구성되어있다. 큰고드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민족주의자 단재 신채호선생이 성장한 마을로 그의 사당과 기념관이 있으며, 마을 깊숙이에는 2004년에 700평 부지에 한옥 2채와 부대시설을 지어 전통생활체험장으로 운영 중이다. 대상지는 귀래리 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위치해 있고 신채호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큰고드미로 한정한다. 1968년 25가구가 살았으며, 한가구당 7~8명 정도로 150~200명이 살았고 신씨 집성촌이었다. 1995년도에 대부분의 가구는 도시로 이사를 가고, 두 집이 이사를 오고, 1996년 한옥집 다섯가구가 들어와 2011년도에는 총 12가구, 25명이 살고 있다(Table 3 참조).

Table 3 고드미녹색마을 기본현황

행정리	대상마을	가구 (인구)	면적	사업명
	자연마을명			
낭성면 귀래리	큰고드미, 동녘골, 시골, 작은고드미	51(125)	3km ²	정보화 마을
	큰고드미	12(25)	630m ²	녹색농촌 체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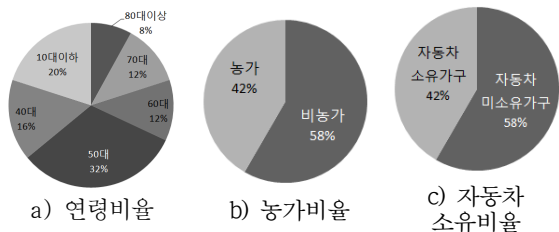


Figure 2 고드미녹색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고드미녹색마을의 연령비율은 20~30대가 없고,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마을에는 5명의 초·중·고생과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거주한다. 마을의 농가비율을 약 60%이며, 비농가는 근거리에서 있는 직장을 다니는 가구로 조사되어 약 40%이다. 차량소유비율은 50%미만으로 외부 출입 시 주민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버스와 미원과 낭성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및 택시를 이용한다(Figure 2 참조). 이 마을의 버스정류장은 신채호사당 앞 주차장이며 하루에 4번의 버스가 들어왔다 나간다. 신채호사당의 주차장은 외부인의 방문용 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마을 버스이용 및 마을 주민들이 오고가는 큰고드미의 입구이자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명심체험마을 일반현황

명심체험마을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이며 진천군청에서 북쪽으로 약 7.2km에 위치해 있다. 명심은 윗마을을 발래기, 중간마을을 명심과 양달말, 밑 마을을 동암(東岩)말로 분리되어있다. 60여 호 가구에 강릉 김씨와 충장공의 후손의 의령남씨(宜寧南氏)가 대성을 이루고 있고, 고추·담배를 재배하여 연간 농가소득이 비교적 높은 마을이다. 총 면적은 임야 851ha, 농지 81ha, 기타 29ha로 총 961ha이다. 2011년 8월말 인구 및 가구 수는 남 56명, 여 98명으로 총 154명에 75가구가 살고 있다(Table 4 참조).

명심마을은 6.25 피난 지역으로 1960년대 102가구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에는 농촌 이농현상으로 빈가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5년 마을에는 48가구만 남았다. 체험마을이 진행되기 전 2000년도 비포장이었던 마을 진입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한 이후에 2003년 정부의 정책사업인 농도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외지인이 정착함으로 인해 지금 현재 65가구까지 증가했다. 명심체험마을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 휴양체험마을로 체험학습장, 펜션, 향토음식당, 강의실, 농산물체험장, 각종 체육시설 등을 완비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다.

명심체험마을의 연령비율은 60대와 70대가 주를 이루며, 80대가 20%, 50대가 10%로 일반 농촌의 고령화를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농가비율은 79%가 농가이며, 발래기에 이사 온 몇 가구와 명암분교 및 교회에 살고 있는 가구가 비농가로 21%이다. 자동차 소유비율은 31%로 대부분의 60대 이상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60대~70대 가구 중 16가구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마을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버스는 마을회관 앞마당, 양달말에 하루에 4번 들어온다(Figure 3 참조).

Table 4 명심체험마을 기본현황

대상마을		가구 (인구)	면적	사업명
행정리	마을명			
백곡면 명암리	발래기, 명심, 양다말, 동암	75(154)	961ha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관광장수마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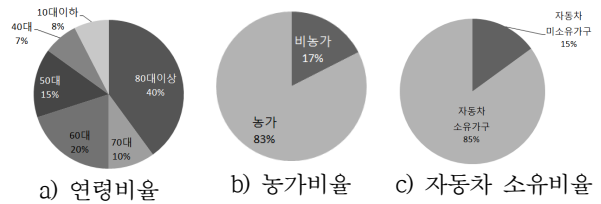


Figure 4 오박사 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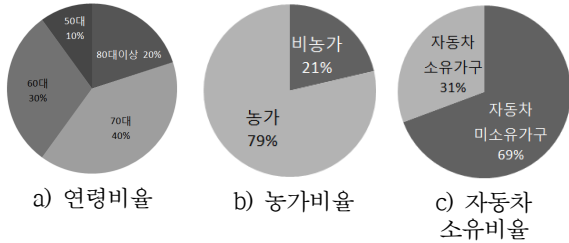


Figure 3 명심체험마을 연령·농가·자동차소유 비율.

2. 대상지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분석

(1) 고드미녹색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고드미녹색마을의 공간구조는 폐쇄적 종결형으로 개방감이 가장 적은 지형이며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 바깥쪽으로 경작지가 위치한다.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보통의 폐쇄적 종결형 공간구조와 다르게 마을 진입로가 두 곳이 있었다. 마을 진입로는 32번국도 큰길에서 어귀길로 2km를 들어오는 길과 사당 좌측 산으로 오두막이 있던 호정리와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주로 호정리와 이어지는 산길을 청주로 오고가는 최단 길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마을의 입구의 역할을 하는 오두막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도에서 어귀길로 들어오는 진입로만을 이용하고 있다. 호정리로 이어지는 산길은 이용하지 않으므로 마을의 공간구조는 더욱 폐쇄적 종결형을 취하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마을의 경계가 뚜렷하여 소속감 및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마을회관은 귀래리 마을입구 가까이에 있는 시골자연 마을에 위치하므로 큰고드미에는 사당에서 호정리로 넘어가는 산비탈에 마을입구의 오두막이 주민들과 만남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길의 변화에 따라 주 진입로가 달라지므로 주민들의 만남장소 또한 소실되었으며, 느티나무 밑에 정자를 설치하여 쉼터의 역할을 하려했으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Figure 5 참조). 이후로 1995년도에 한옥주거지가 들어오고, 1997년 이후로 이장택이 집을 신축함으로 주택들의 변모가 시작되고, 2003년에 단재신체호기념관이 개관하였다. 마을 어귀길에서 마을안길로 갈라지는 중심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그 주위에 있던 마을 우물, 빨래터 등이 매워져 사라졌다. 또한 연자방아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용수가 줄어들면서 없어지고, 암수 두 그루의 느티나무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3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들어와 마을 깊숙이 체험연못과 체험관 및 숙소가 터를 잡았다(Table 6 참조).

그로인해 마을안길은 체험관까지 차 한대가 다닐 수

(3) 오박사마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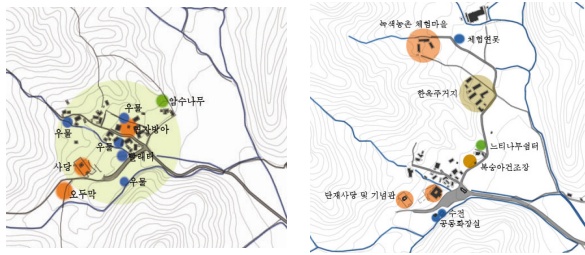
오박사마을은 보성군 현필공의 25~28대 후손들이 모여 사는 보성오씨 집성촌으로 범죄 없는 마을, 금연마을, 장수마을로 지정되었다. 시목리는 서쪽에 금강을 접하고 북쪽은 부용면과 옥포천을 경계로 동은 선동리, 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동과 접하고 있다. 행정리는 시목1, 2, 3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상지는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시목2리로 제한한다. 마을 옆으로 철도가 위치해 있고 5분단위로 기차가 지나가며 철도로 인해 마을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증개축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일반현황은 Table 5와 같다.

오박사마을의 연령비율은 8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70대가 10%, 60대가 20%를 차지해 고령인구가 많다. 50대와 40대가 20% 넘게 살고 있어 인구비율이 다양하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부족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농가는 83%로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3-4가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자동차 소유비율은 85%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차가 있으며 혼자사는 할머니들만 개인 차량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참조).

Table 5 오박사마을 기본현황

대상마을		가구(인구)	면적	사업명
행정리	마을명			
현도면 시목리	시목 2리	20호 40명	42.91km ²	녹색농촌체험마을 장수마을

있는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마을의 영역은 확장 및 분산되었다.



a) 과거 b) 현재(2011년)

Figure 5 고드미녹색마을 공간구조.

Table 6 고드미녹색마을 공동공간

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녹색 마을	1990년 대전	우물(2), 빨래터, 암수느티나 무, 오두막	연자방아	신채호 사당
	1990년 대후	체험관 및 숙소, 그네, 느티나무 밑 쉼터, 체험연못, 수전	복숭아 건조장	신채호선생 묘소 및 기념관

현장조사 시 큰고드미 밖에서 공동으로 주민들이 모였던 추가적인 공간은 마을주막이다. 마을주막은 새벽에 나무를 해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마을 주민들이 매일 부딪치고 만나는 공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에는 모두 소실되었다.

(2) 명심체험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진천명심마을의 공간구조는 입구가 하나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반개방적 종결형으로 계곡사이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큰길에서 어귀길로 2.8km를 들어오면 명암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다. 백곡저수지로 합쳐지는 1급수의 명암천이 흐르며 천좌로 어귀길에서 마을안길로 진입하면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Figure 6 참조). 노인정이 있는 공간이 명심마을의 중심성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으나 결속력을 높이는 명암분교가 폐교되고, 체험마을이 들어서면서 공동모임장소가 늘어나게 되어 중심성이 약화된 상태이다(Figure 7 참조).

마을은 자연마을마다 10분 이상의 거리로 발래기, 명심, 양다말, 동암으로 4개의 자연마을로 구분되어 위치한다. 과거에는 양다말은 명암노인정, 노거수, 명암분교, 마을금고, 빨래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중심기능을 하였다. 또한 버스가 양다말까지 들어와 마을마당에서 돌아나가 버스정류장이 없이도 느티나무 노거수 그늘에서 기다리므로 마을마당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모임공간이 된다. 그러나 명심에 명심체험마을사업이 들어오면서 체험관, 펜션, 정보화마을센터, 황토음식당,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있는 작은 소공원이 신축되면서 마을의 중심지가 체험마을 시설물 쪽으로 이동되었다(Table 7 참조). 마을회회는 동일하게 마을회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의 회의나 교육은 정보화교육관에서 담당함으로 모이는 장소가 분산되어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Figure 8 참조).

느티나무 쉼터는 마을 경로당 앞에 위치하며 주민들의 담소를 나누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장소이다. 버스를 탈 때, 마을회관을 갈 때, 체험관에 갈 때 지나치는 장소뿐만 아니라 만나는 장소가 된다(Figure 9 참조).

1990년대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분류상 항목으로는 신앙·의례의 상여집이다. 상여집은 명암마을의 애경사를 함께 해주는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재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마을회의 모임 속에 애경사를 챙겼지만, 현재에는 상조회사들이 생기고, 결혼식장의 편한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공동체가 애경사를 함께 나누고, 마을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발달시켜가는 일 등이 없어지므로 공동체결속력을 약화시켰다.



Figure 6 명심체험마을 전체위성지도.



Figure 7 명심체험마을 과거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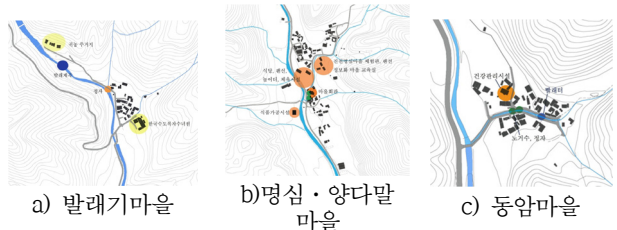


Figure 8 진천명심마을 공간구조(2011년).

Table 7 진천명심마을 공동공간

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진천명심 마을	1990년 대전	명암분교, 마을급고, 느티나무쉼터 , 우물, 빨래터, 마을회관	-	한국수도복 자수녀원, 이교영선생 효자비
	1990년 대후	체험관 및 펜션, 향토체험식당 , 느티나무 쉼터, 건강관리시설 , 빨래터, 정보화센터, 마을회관, 체육시설, 놀이터, 발래기정자, 동암정자	농산물가 공센터, 임산물재 배 하우스	한국수도복 자수녀원, 이교영선생 효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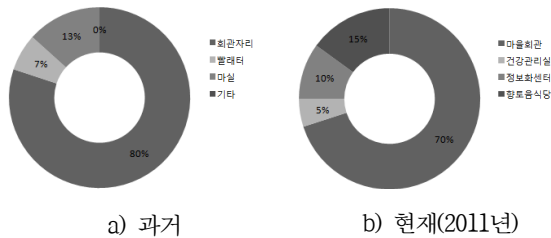


Figure 9 명심체험마을 공동공간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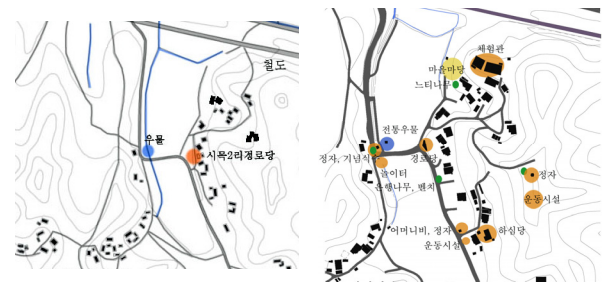
(3) 오박사마을 공간구조 및 공동공간 현황

오박사마을의 공간구조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2 개 이상으로 반개방적 순환형이다. 큰길에서 어귀길로 지하차도를 지나 400m 이내로 경로당 인접 국도와 가깝다.

마을의 입구에는 350년 된 전통우물이 위치해 있다.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와 느티나무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맞은편으로는 마을의 안내판과 그 뒤로 그네 및 체육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우물은 마을입구의 상징성 및 우물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다. 경로당에서 좌로는 체험마을과 마을마당, 우로는 마을의 대부분의 가구와 하심당이 위치한다. 이웃과의 교류는 대부분 마을입구의 우물과 갈래길에 위치한 경로당이다. 생활공동 공간인 시목2리 경로당은 과거에는 어귀길에서 마을길로 들어와 중심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마을마당을 만들고 공

간의 위계상 마을내의 영역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고 어귀길에서 두갈래로 마을안길이 갈라지면서 마을을 순환함에 따라 경로당 앞에 마당이 없어지고 갈라지는 마을길 중심에 경로당이 신축되었다. 그로인해 경로당은 지형의 모양에 따라 5각형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다(Figure 10 참조).

마을의 정자는 체험관 뒤, 하심당 앞, 어머니비 옆, 우물 앞, 마을마당 총 5개가 자리하고 있다. 곳곳의 지나가는 이로 하여금 쉬어가게 만들어 놓았으나, 작은 마을 안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앉아 쉬어가는 공간보다는 통행로에 지나가는 공간으로 이용빈도가 낮다. 또한 곳곳에 은행나무 벤치, 마을마당 앞의 느티나무 벤치 등과 쉼터 옆에는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Table 8 참조).



a) 과거 b) 현재(2011년)

Figure 10 오박사마을 공간구조.

Table 8 오박사마을 공동공간

마을명		사회적 영역		의식적영역
		생활공동	생산공동	문화공동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2리 오박사 마을	1990년대 전	시목2리 경로당,	마을마당 (경로당 앞)	전통우물
	1990년대 후	전통우물, 경로당, 체험관, 하심당, 정자, 운동시설, 느티나무쉼터, 은행나무벤치,	마을마당 (체험마 을 밀)	어머니비

IV. 결 관

195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완결된 공간에 대해 회고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였다. 공간구조의 특징이 다르고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의 변화

가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간 충북도내 고드미녹색마을, 명심체험마을, 오박사마을을 대상으로 일반현황과 공간구조, 공동공간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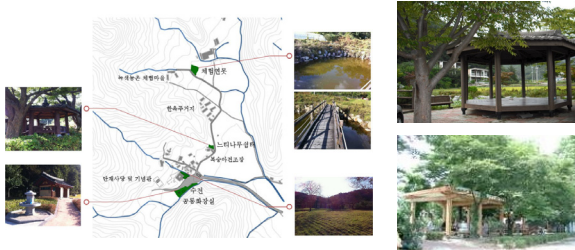
그 결과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공간은 소실되고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외부방문객이 사용할 공동공간이 마을에 자리를 잡음으로 주민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구성을 마을별 제시하였다.



a) 현재(2011년) b) 마을마당 대안

Figure 12 진천명심마을 대안.

1. 고드미녹색마을



a) 현재(2011년) b) 마을쉼터대안

Figure 11 고드미녹색마을 대안.

2011년 고드미녹색마을 내부는 주거지 기능 외에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연자방아는 마을내부 특정 집 주위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 간에 곡식을 뺏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현재에는 이용의 부재로 사라졌다. 마을 내부 한자리에서 100여년을 지켜 온 느티나무 밑에 정자를 설치하였지만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옥주거지가 생기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들어와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언덕에 방치되어 이용빈도가 낮다. 마을주민들이 쉼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길과 주변의 경관을 정돈해야 한다.

고드미녹색마을의 대안 공동장소로 단재신채호기념관 옆 잔디밭을 선정하였다. 고드미 자연마을의 입구이자 중심으로 과거에 있던 오두막의 장소성을 지니며, 마을 주거지에서 멀지 않고, 찾아온 방문객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념관 옆 잔디밭에 오두막의 기능을 수반하는 등나무와 쉼터 공간을 계획한다(Figure 11 참조).

2. 명심체험마을

명심체험마을의 마을회관은 사랑방에서 시작하여 마을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공간이었다. 마을회의 때는 모든 마을주민들이 회관을 이용하나 평일에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한다. 그

러므로 명심체험마을의 대안 공동장소로 마을회관과 회관 앞 느티나무 쉼터 및 마을 마당을 선정하였다. 중심지가 각 자연마을과 체험시설물로 분산되어 약화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접촉점을 높일 수 있는 마을회관의 정비와 마당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에서 조사된 화장조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엌 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자에 맞게 설비 및 디자인 되어야 한다. 마을회관 가까이에 식당과 정보화교육관이 있으므로 마을회관을 주민복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복합된 시설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명심체험마을의 마을마당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활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소의 바닥면과 수목, 정자 등을 보완하고 빨래터를 복원 및 수공간영역을 포함하여 마을마당을 확장시킨다.

현재 마을의 어귀길은 대부분 포장도로이며 마을안길은 시멘트도로이다. 마을 마당 또한 시멘트로 덮여 있고 시멘트 벽돌과 블록이 느티나무 주변으로 쌓여있어 쉼터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잔디블럭으로 바닥을 정돈하고 마당 주위의 집들은 마당으로 나온 기차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빨래터는 마을곳곳에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되는 곳도 있다. 명심마을이 자랑하는 1급수의 물이 흐르는 천을 따라 빨래터가 존재하므로 마을마당 앞 천을 정비하면서 빨래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가공센터는 체험 시설물로 용도를 바꿀 예정이므로 앞에 흐르는 천변으로 빨래터를 이동시켜 체험을 하고 마을마당과 연계하여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마당의 공간감을 더해주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벤치를 놓아도 좋지만 평상이나 정자 같이 노인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 마을 중심에는 느티나무 3그루가 있으며 마을회관 앞과 천변 쪽 다리 앞과 다리 건너 위치해 있다. 마을회관 앞 쪽에 있는 수목은 주로 마을주

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천변 맞은편 수목은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체험객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한다(Figure 12 참조).

3. 오박사마을



a) 현재(2011년) b) 경로당 대안

Figure 13 오박사마을 대안.

마을중심의 경로당과 마을입구의 우물과 쉼터는 주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동공간이다. 마을 어귀의 우물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포하여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쉼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경로당은 어귀길 갈래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하다. 경로당을 후치시켜 과거 경로당과 같이 배치시켜 경로당 내부 공간과 마당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 건축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방안은 뒤의 밭을 공동화 하여 뒤에 현관문을 만들어 출입하는 것이다. 또한 3~4가구만 50대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70~80대로 80대의 인구비율이 높은 마을이므로 경로당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로당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으로는 화장실은 여단이 문, 광센서가 달려 간단히 직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전, 높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실수로 닿더라도 화상입지 않도록 단열재로 감싼 파이프, 가볍게 눌러도 쉽게 열리는 레버형 손잡이 문, 문턱이 없는 문 등 이다.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이용을 최대한 편리하면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Figure 13 참조).

V. 결 론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초하여 마을의 형태 및 공간구조, 공간요소 등을 파악하고, 공동공간을 분석 및 재구성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농촌마을의 공간구성을 제시하였다.

1.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의 변화요인으로는 생활양식의 변화, 농촌정책의 변화, 사회·정치적 제도의 변화, 경제적 원리 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공동공간은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농촌마을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원리를 파악하여 계승하며 마을의 공동공간을 개선시켜야 한다.

2. 농촌마을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의 원리로는 입구성과 중심성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공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실되거나 과거에 비해 약화된 중심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을회관이 중심성을 잃지 않도록 마을만의 개선할 점을 도출하였으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의 복합화, 마을의 중심의 마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대상 마을별 공간구조 및 특징에 따른 계획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분별 공간계획 안을 제시하였다.

1) 고드미마을은 입구이자 공동체가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기념관 옆 잔디밭에 등나무와 쉼터를 마련하고, 신채호기념관 앞 수전, 노거수 쉼터, 체험연못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

2) 명심체험마을은 마을의 중심을 살릴 수 있도록 마을마당을 정비하고, 마을회관의 설비적 측면을 개선하고 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

3) 오박사마을은 마을의 중심 어귀길에 위치하는 경로당을 후치시키는 배치 또는 뒤의 밭을 공동화하여 배면에 입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을의 복지회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내디자인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물리적인 공간만을 다루었음을 밝힌다. 대안제시 시 적합도의 정량화가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공간구문론 등의 프로그램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된 인자들을 대입하여 장소의 적합도를 정량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간구조의 대안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동체 함양에 대한 연구들이 결합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강선중, 김홍식, 1986, 마을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한국전통사상 연구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답
2. 김강섭, 이상정, 2006,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2), 3-10.
3. 김수진, 박정임, 심우경, 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14-27.
4. 김홍식, 1975, 마을공간구성 방법에 대한 한국 전통 건축사상 연구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1리 괴실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9(64), 45-50.
5.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4(4), 121-128.
6. 양승정, 김용승, 박용환, 2006, "한국전통마을 공간구성의 시설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 공간통사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4), 169-178.
7. 이상문, 2001, 한국 농촌마을의 공동정주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6(1), 7-23.
8. 임재해, 2007, 마을민속조사연구방법, 민속원.
9. 조순재, 2002, 농촌지역의 공동시설 정비방안, 농어촌과 환경, 12(3), 22-28.
10. 조영재, 2010, 지방정부의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6(1), 35-47.
11. 최영완, 윤용철, 김영주, 2010, 농촌마을정비시 농촌공간특성별 정비유형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6(2), 1-10.
12. 한필원, 이광노, 1990,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경북 금릉군 구성명 상원리 원터마을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3), 105-112.
13. Hillery George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접 수 일: (2013년 7월 15일)

수 정 일: (1차: 2013년 9월 22일, 2차: 12월 5일)

계재확정일: (2013년 12월 5일)

■ 3인 익명 심사필